

주님의 기도 By Diane Menditto 국가형제회 부봉사자(National Vice Minister)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By Mary Frances Charsky, OFS 국제형제회 평의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By Justin Carisio, OFS 국가 양성 위원회 (National Formation Commission)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Vickie Klick 국가형제회 기념제 전담 회장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Kathleen Molaro, OFS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소년 담당 (Franciscan Youth and Young Adult Commission Chair)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By Francine Gikow, OFS 국가 양성 위원회(National Formation Commission)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나의 나라는 끝납니다 Kathleen Molaro, OFS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소년 담당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숨겨진 유혹이든 분명하게 드러난 유혹이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유혹이든 끈질기게 계속되는 유혹이든 By Corinne Lorenzet, OFS 국가 평의원(National Councilor), CNSA 서기
당신의 뜻이 이루어 지소서 By Joe Makley 미국 국가 형제회 정평창보 (JPIC) 애니메이터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By Bret Thoman, OFS

주님의 기도
By Diane Menditto
국가형제회 부봉사자(National Vice Minister)

‘성 프란치스코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의 시선은 하느님과 그의 관계로 향합니다. 이번 타우지의 주제로 ”주님의 기도” 묵상 (글, 83 쪽)를 선택했습니다. 이 기도는 성 프란치스코의 내적 영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창 가운데 하나입니다. 곧, 관상적이며, 삼위일체적이고, 하느님의 넘치는 선하심을 중심에 둔 영성입니다. 이 기도는 가장 초기의 필사본 모음집에 보존되어 있으며, 현대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진정한 프란치스코의 저작으로 인정하는 문헌입니다. “13 세기의 두 가지 주님의 기도 주해는 이러한 기도 방식이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뿐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깊은 태도를 제시하는 ‘기도 교리서’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 이 글은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FA:ED, vol. 1, 158 쪽)

이 기도는 초기 형제 공동체의 양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하느님과 은총, 용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도의 각 청원을 관상적 묵상을 통해 확장하는 중세의 일반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그의 표현은 단순하고 따뜻하며 온전히 하느님의 선하심에 중심을 둔, 프란치스코 특유의 영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세라핌적 아버지 성 프란치스코는 이 기도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 구속자, 위로자, 구원자이여.”

성 프란치스코의 하느님에 대한 비전은 삼위일체적입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시며, 으뜸선이십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짧은 몇 마디 안에, 시대를 거쳐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천 쪽의 글과 수백 권의 책으로 풀어 설명해 온 진리를 담아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성부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성 프란치스코가 자신과 그의 형제들이 살아가기를 바랐던 삶의 자세, 곧 전적인 맡김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다른 글들을 살펴보면, “창조주, 구원자, 위로자, 으뜸선”이라는 호칭은 이 기도에만 나타나는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창조주, 구원자, 위로자, 으뜸선이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다른 언급들

창조주: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3(글, 225 쪽); 하느님 찬미의 권고(글, 71 쪽); 형제회에 보낸 편지; (글, 183 쪽)

구원자: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형제회에게 보낸 편지
위로자: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글, 68 쪽); 주님의 수난 성무일도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느님)(글, 95 쪽)

으뜸선: 하느님 찬미의 권고: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3; 형제회에 보낸 편지: 주님의 수난 성무일도

있습니다. 이는 그의 진정성 있는 저작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호칭들은 하느님을 부르는 프란치스코 고유의 방식, 곧 넘쳐흐르는 찬미와 삼위일체적 구조, 하느님의 총명한 선하심을 강조하는 영성을 잘 보여 줍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고자 했던 프란치스코의 열망은 우리를 삼위일체의 신비 전체 안으로 이끌어 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로 이루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며 그 기도가 여러분을 프란치스코 영성의 더 깊은 세계로 이끌도록 자신을 맡겨 보십시오. 또한 성 프란치스코가 하느님 아버지를 언급하는 다른 여러 대목들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igitalcollections.franciscantradition.org/pages/early-sources-table-of-contents>

이 짧은 몇 마디의 말씀만으로도 집이나 성체조배 중에서든, 오랜 시간 묵상하고 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성 프란치스코가 이해한 ‘아버지’의 의미는 여러분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더욱 깊게 해 주니까?

+ 여러분은 삶 속에서 창조주, 구원자, 위로자이신 하느님을 언제, 어디에서 체험하십니까?

이 글의 주요 참고 문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2014).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서울, 프란치스코 출판사
Armstrong, R., Hellmann, J., & Short, W. (Eds.). (1999). Francis of Assisi: Early Documents, Volume 1: The Saint. New York: New City Press.

추가 독서 문헌:

Short, William J., OFM. The Franciscans.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89.
Thompson, Augustine, OP. Francis of Assisi: A New Biogra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2.
Armstrong, Regis J., OFM Cap. St. Francis of Assisi: Writings for a Gospel Life. New York: Crossroad Publishing, 1994.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By Justin Carisio, OFS
국가 양성 위원회 (National Formation Commission)

성 프란치스코가 천국과 하느님의 위엄을 어떻게 상상했는지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중세 사람이었던 프란치스코의 우주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의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를 중심에 두고,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이 각각의 동심 구체 안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며 별들의 구(球)에 이르는 구조로 우주가 이루어져 있다는 모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지막 가시적 창조의 구(球) 너머에는 “천상의 불꽃(Empyrean Heaven)”¹ 이라고 묘사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의 영역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께서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실제적인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의 노래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인식의 단서를 보여줍니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닌” 형제 태양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²

주님의 기도 묵상의 제 2 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프란치스코는 아버지 하느님을 2 인칭으로 부르며, 이 기도 전체에서 계속 사용할 목소리를 유지합니다. 프란치스코의 표현은 명확하고, 시적이며, 신학적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각각의 행위는 하느님의 본성에 관한 어떤 면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과 성인들을 비추시고, 그들 안에 불을 밝히시며, 그들 안에 머무르십니다.

이 각각의 행위는 차례로 프란치스코가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발견하는 한 가지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비추어 주시는 행위는 하늘의 무리들에게 지식을 부여하는데, 이는 “주님, 당신은 빛이시기에”라는 고백에 근거합니다. 천사들과 성인들을 불타오르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는 “주님, 당신은 사랑이시기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들 안에 머무르시는 것은 그들을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며, 이는 “주님, 당신은 으뜸선이시고 영원한 선이시며”라는 고백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신학을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선하십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마지막 측면, 곧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는 주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으뜸선이시고 영원한 선이시며, / 모든 선이 당신에게서 나오고, / 당신 없이는 어떠한 선도 없기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란치스코가 ‘선’라는 말을 형용사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명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느님을 수식하거나 하느님의 어떤 특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 자체가 바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

냅니다. 이러한 확장된 설명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 곧 선 자체이시며 동시에 모든 선의 근원이신 분으로서 — 프란치스코가 복음적 삶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찬미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청원과 간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이어지는 절들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선이 당신에게서 나오는”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동안 하느님의 빛이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타오르도록,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심이 그들 안에 머무르도록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주님의 기도 묵상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분은 신학적 사유인 동시에,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신비를 관상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며, 그분의 변화시키는 은총에 자신을 열어 두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손길 안에서 이 구절은 하느님의 숭고함에 대한 하나의 비전이 되며,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이 영원한 선이신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¹ “What Is the ‘Empyrean Heaven’? The Medieval Cosmology That Placed the Dwelling of God Physically Above the Stars,” Catholicus.eu English, May 25, 2026, <https://catholicus.eu/en/what-is-the-medieval-cosmology-that-placed-the-dwelling-place-of-god-physically-above-the-stars/>.

¹ Quotations from the writings of St. Francis are taken from *Francis of Assisi: Early Documents* (FA:ED I), edited by Regis Armstrong, J. A. Wayne Hellmann, William J. Short (New York, London, and Manila: New City Press, 1999).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Kathleen Molaro, OFS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소년 담당

(Franciscan Youth and Young Adult Commission Chair)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기도할 때, 이는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겠다는 다짐입니다.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하느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축복과 약속, 지극히 높으신 위엄,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일깨워 줍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분의 현존에 감사할 때,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경배하도록 이끕니다. 주님의 기도의 이 구절은 결코 수동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찬미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 세상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깨닫고 타인을 위해 봉사할 성숙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혹과 산만한 환경, 수없이 교차하는 세상의 견해와 선택지 앞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는 기도는 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고 살아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정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모든 좋은 것(All Good)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프란치스코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어 준다면, 이들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숙한 믿음이란 끊임없이 마음의 순결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회개'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12 조의 가르침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회원은 내세 행복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기가 받은 성소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으며,”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12 조*)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결단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이 이룬 성과에 도취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느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근 아침 미사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젊은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대견하여 다가가 인사를 나누며 어디서 왔는지, 아침 미사에 참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가슴 깊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과 주어진 기회, 그리고 이곳 북가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만 있다면 미사에 참례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저 여행 중인 이들이었지만, 하느님의 현존과 은총을 자신들 여정의 가장 소중한 일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선함을 세상에 증언하고, 그분을 찬미함으로써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삶 안에서 감사와 겸손, 기쁨을 실천할 때 젊은이들 역시 '거룩함이란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배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는 기도는, 곧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말을 삶으로 옮겨 살아내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나의 나라는 끝납니다

Kathleen Molaro, OFS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소년 담당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는 기도문은 우선 영원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미 현존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알아보고 섬기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는 곳이 바로 그분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바치는 이에게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가져다줍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은 우리에게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제 6 조)고 가르칩니다. 이 기도 역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하며, 은총을 통해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에 따른 상급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기쁨”, “확실한 비전”, “완전한 사랑”, 그리고 “복된 친교”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간의 소명은,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신하기 위해 창조주께 받은 힘과 수단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 (CC #2820)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말씀과 성체, 그리고 서로를 통해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과 친절, 자비의 삶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만의 세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시며, 나의 나라는 끝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번잡함에 매달리다 보면, 나만의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매일 처리해야 하는 일들에서 특히 잘 나타납니다. 언젠가 저는 청년들에게 학업, 결혼과 육아, 생계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과 제 작은 세상에만 갇히기 쉬워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참된 하느님 나라에 집중하도록 계속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로마 14,17)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1 코린 6,9)라고 경고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며 다른 이들도 그 나라를 찾도록 격려하는 길은, 매일 스스로 모범이 되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역시 “화해성사는 성부의 자비심의 특별한 표지이며 은총의 샘”(제 7 조)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며, 나의 나라는 끝납니다.”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는 내 자아의 지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관상과 기도, 화해와 매일의 회개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느님 통치의 표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이들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엿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 지소서
By Joe Makley
미국 국가 형제회 정평창보 (JPIC) 애니메이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소서:**

성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기도문의 이 구절을 사용해서 첫 번째 계명, 즉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두 번째 계명, 즉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에 따른 우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영광을 구하라'는 초월적인 전략은 '피조물의 찬가'에서 드러나는데,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느님의 영광을 보려고 할 때, 그것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끌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사랑 안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그 사랑을 봉사로 나타내는 것 말고도 있을까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 대해 우리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함께 고통받아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이것을 *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웃들이 '불법체류자'라고 깎아내려지는 말을 듣고,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가족과 떨어지게 될 때, 우리 회원들이 프란치스코 정신으로 함께하는 행동들(법원 도움, 음식, 금전 지원, 차량 제공 등)은 하느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해외에 있는 엄마들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 속에서 자기 아이들을 걱정할 때, 우리 회원들은 교회와 함께 "휴전! 폭격 멈춰!"를 외치며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도시 감금소로 쫓겨나 여러 가지 나쁜 상황에

시달리고 안전도 부족할 때, 좋은 프란치스코회 형제 David Buer, OFM 처럼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필립비 4:7)

사진: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이 Missionaries of Charity 소속 수녀와 함께
노숙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호스피스에서 일하며 50 명 이상의 거주자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t. Margaret of Cortona 지역의 JPIC 애니메이터인
Pat Boye, OFS 님이 공유했습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By Mary Frances Charsky, OFS
국제형제회 평의원

매일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의 순간을 주시지만, 우리를 위해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찬의 선물만큼 깊은 것은 없습니다. 영성체에서 우리는 단순히 영적인 양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사랑하신 분의 살아 있는 존재를 받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경외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움직여 독생자를 보내게 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움직여 우리 구원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게 한 사랑. 우리 삶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어,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닮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체를 경배하는 것은 이 이해를 더 깊게 해줍니다. 조용히 성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상적인 일과, 희생,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빵을 알아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빛나는 중심으로 성체를 본 성 프란치스코의 단순함과 헌신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축복받은 성체를 숭배하는 것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발을 씻겼고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여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지시는 우리가 받는 빵 성체는 우리가 봉사의 삶, 형제애 그리고 베푸는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밝혀주십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양육받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존재가 되도록 보내심받은 성체적인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새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Vickie Klick
국가형제회 기념제 전담 회장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당신의 자비와
우리의 주님이시며 사랑하는 당신 아드님의 수난의 힘과,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당신께서 뽑으신 모든 이들의 공로와 전구로.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위대한 용서의 힘과 무한한 자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느끼고, 실제로 죄인이라도,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자비와 용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시며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인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확신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아드님의 수난에 더하여, 프란치스코는 동정 마리아와 “당신께서 뽑으신 모든 이들”의 전구에도 의탁합니다. 이미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들을 뜻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서로를 위한 기도의 가치에 대한 확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형제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자주 바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신이 그렇게까지 많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을까요? 성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회칙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러한 필요와 새롭게 변화되고 쇄신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기 쇄신 과정에서 화해성사는 성부의 자비심의 특별한 표지이고 은총의 샘이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7 조]

저는 1982 년에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1985 년에 재속 프란치스코인으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화해성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2025 년 봄부터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꼭 고백성사를 해야 할 일인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번에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짓는 잘못들 가운데 일부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보면서, 더 힘을 얻기 위해 자주 화해성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잘못들을 고백하면서, 하느님께 인내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정기적인 고해성사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면, 본인에 맞게 정기적으로 화해성사를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칙의 짧은 문단들이 우리 회헌에서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언제나 큰 도움이 됩니다.

(회칙 7) 처음에 ‘회개의 형제 자매들’이라 불렸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은 끊임없는 회개의 정신 안에서 살아간다. 개인적으로나 형제회 안에서 프란치스칸 성소의 이러한 특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의 전례, 생활 반성, 피정, 영적 지도, 참회 예적 등이 있다. 그리고 형제회 안에서든 하느님 백성들과 더불어서든 공동체적으로 거행하며, 자주 화해의 성사를 복 것이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헌 제 13 조]

우리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끊임없는 회개의 정신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By Francine Gikow, OFS
국가 양성 위원회(National Formation Commission)

웹스터 신대학사전(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에서 "trespass"의 첫 번째 정의는 "도덕적 또는 사회적 윤리를 위반하는 것, 특히 죄"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이 말은 **우리에게 저질러진 죄와 잘못**을 의미합니다. 곧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키거나, 신뢰를 저버리거나, 우리의 감정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용서는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하느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깊고 영적인 행위**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온유하면서도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 앞에서 간절히 전구해야 합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죄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언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844 항)

가톨릭 신앙 안에서 용서는 하느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선택이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분노와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반드시 바로잡거나, 자신이 끼친 상처를 "보상"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느님 안에서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즉시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며, 한 번 결심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단 한 번의 사건"도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분노와 복수심과 미움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는 부담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온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모욕을 느끼지 않거나 그것을 잊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 마음을 내어 맡기는 마음은 상처를 연민으로 바꾸고, 상처를 전구로 변화시킴으로써 기억을 정화한다." (2843 항)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때문에 참으로 저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전구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이를 돕도록 힘써
노력하게 하소서."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고통이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이미 하느님께 받은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람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누군가가 다시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면, 용서의 과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마태오 복음 18 장 21-22 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그나티우스 가톨릭 성경 연구(Ignatius Catholic Study Bible)는 “일흔일곱 번”이라는 표현을 “**”한계 없는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용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죄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오래된 격언이 참되게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요, 용서하는 것은 신적인 일이다.” 참된 용서는 우리를 바로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하느님 사랑의 중심으로 이끌어 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읽기: 가톨릭 교회 교리서, 2842-2844 항

묵상하기: 내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들을 돌아봅시다. 나는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지 않은가?)

실천하기(Act):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숨겨진 유혹이든 분명하게 드러난 유혹이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유혹이든 끈질기게 계속되는 유혹이든
By Corinne Lorenzet, OFS
국가 평의원(National Councilor), CNSA 서기

처음 이 말씀을 대하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기도에서 이 구절은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묵상의 첫 부분에서 하느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선이시며, 영원한 선이시며, 모든 선이 그분에게서 오는 분...” 그런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유혹으로 이끄실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부, 그리고 좋은 영적 지도를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우리 교구에서 제공하는 4 년 과정의 성경 학교에 참여했습니다. 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강사들은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번역의 의미, 당시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말씀을 처음 들었던 대상 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깊이 공부하게 되었을 때, 강사님은 이 구절의 히브리어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희가 유혹에 들어가거나 유혹에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저에게 이 구절은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유혹은 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은 분명히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를 유혹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 내 삶에서 필요한 경계를 세울 만큼 절제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정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걸까요?

전통적인 통회 기도(Act of Contrition)에서 우리는 “죄의 가까운 기회를 피하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더 자주 노출시킬수록, 결국 그 유혹에 굴복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유혹을 “숨겨진 유혹이든 분명하게 드러난 유혹이든, 갑작스러운 유혹이든 끈질기게 계속되는 유혹이든”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정확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글에서 자신이 겪었던 유혹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눈 속에 몸을 굴렀던 이야기나 장미 가시덤불 속에 몸을 던졌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한 번 고해 신부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같은 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 죄들은 제가 가진 가장 큰 약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끈질기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혹입니다. 저는 그 유혹들을 늘 의식하고 있고,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하느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숨겨진 유혹”과 “갑작스러운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종종 제가 제 행동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저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느님께서 제가 그 유혹에서 멀어지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당신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연민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십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길이 언제나 참된 길(The Way)임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분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By Bret Thoman, OFS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인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청원: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마태오 6,13)에 대해 놀라울 만큼 짧은 묵상을 남깁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여기에 단 세 마디를 덧붙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악에서.” 다른 청원들에 대한 묵상에 비하면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불과 몇 마디의 말씀 안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힘이 현재의 순간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달리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성 비오 신부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이발사가 파드레 피오의 머리를 손질해 드리던 중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발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성 비오 신부님은 삼촌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발사는 놀랐습니다. 그의 삼촌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 비오 신부님의 대답은 깊은 영적 통찰을 보여 줍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삼촌의 죽음이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시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지금 바치는 기도를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에 주어진 은총에 적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섭리가 시간을 초월하며, 진실하게 바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잘 보여 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표현했듯이,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시간을 영원한 “지금” 안에서 소유하십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느님께 과거의 악에서 우리를 구해 달라고 청할 때, 단순히 오래된 상처나 후회를 잊게 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우리가 상처를 입었던 그 순간들까지 찾아가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구원으로 변화시키시며,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은 미래에도 미칩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유혹을 만나게 될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요청받게 될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불안이 가득한 오늘의 시대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에게 미래를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일을 하느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총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하느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어떤 미래의 시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하느님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과거의 악은 구원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악은 은총으로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악은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청원은 모든 것을 당신 손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행위가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며,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시련과 모든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